

## 이 고비만 넘기면 될 텐데...

박주현(마리안나)/청담동 본당 호스피스팀

**본** 당 가정 호스피스가 발족되어 대상자를 찾으며 봉사체에 동행하던 중 만나게 된 형제님은 59세의 간암 말기 환자였다. 먼저 전화로 방문을 해도 좋은지를 묻고 허락을 받아 방문한 것은 지난 3월이었다. 집은 넓지는 않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부인이 반갑게 맞아주셨다. 환자는 좀 마르고 복수가 차 있었으나 깨끗하고 깔끔한 인상이었다. 환자가 기도해주기를 위해 첫날은 로사리오 기도를 함께 바치고 나왔다.

그 후 일주일에 두 번씩 계속 방문하였는데 부인이 가게에 나가 계신 관계로 설거지나 집안 청소 등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너무 깨끗해서 도와줄 일이 없었고 방문 때마다 혼자 계시는 환자의 친구가 되어 주면서 성가를 부르고 함께 기도하였다. 환자는 병원에 다니지 않고 소변을 받아 한의원에 가져가서 검사한 후 증류수 같은 흰 물약을 타다 먹고, 식사는 선식과 과일을 조금씩 먹으면서 '꼭 나이가 된다'며 삶에 대한 강한 집념을 보였다. 부인은 가게를 운영하는데 호스피스팀이 방문할 시간이면 가끔 집에 와서 함께 기도를 드리곤 했다. 환자는 늘 집에만 계시서 무료하실 것 보여서 흐린 날에는 꽃을 사들고 가기도 하고 부활 때는 계란 바구니를 가져가기도 했는데 계란 바구니를 보고 무척 좋아하시며 병원에 입원할 때까지 머리맡에 걸어놓고 계셨다. 처음 방문할 때는 앉아서 같이 기도했지만 점점 기력이 쇠하여 늘 누워 계시야 했고 복수가 빠지는 약을 복용한 후 더 수척해지고 얼굴색이 노랗게 변했다.

하루는 부인이 늦게 오셔서 환자분 혼자 계셨는데 그날은 말을 많이 하셨다. "내가 걸린 병이 아주 힘든 병이지만 퍼지지 않고 현상유지가 되니 괜찮고 이 고비만 넘기면 될 텐데..." 하시며 자신의 죽음을 부정하는 듯 보였다. 환자는 "젊었을 때 나이가 안들어 보여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아내와 결혼을 하였는데 아내가 불쌍하다. 이곳에 이사와서 15년 동안 살기가 힘들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병에 걸린 것 같다"고 하셨다. "유난히 피부가 희고 고와서 병이 이렇게 깊은 줄 몰랐다면 좋은 일도 많이 하였는데 왜 내가 이 병에 걸렸는지 모르겠다"며 우셨다. 뭐라고 위로를 해 드려야 할지 몰라 가슴이 아팠다. 잠



시 후 부인이 왔길래 환자를 좀 주물러 드리면 어떻겠냐고 여쭙고 손과 다리를 주물러 드렸다. 예민하고 깔끔한 성격이라 말 한마디 건네기도 조심스러워 몸에 손을 대기가 어려웠는데 자주 방문하였더니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여는 것 같아 용기를 내어 주물러 드리겠다고 하였던 것이다. 방문을 마치고 나오려는데 환자는 “늘 혼자있어 외로운데 이렇게 와서 기도를 해주면 활기가 난다”며 처음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다. 계절은 봄이 무르익어 밖에는 꽃이 한창이었고 날씨가 참 좋았다. 집에만 계신 형제님께 꽃구경을 겸해 바람도 쐬 겸 밖으로 한번 모시고 싶다고 하니 부인이 운전할 줄 아니 당신께서 하시겠다고 하셨다. 다음 방문때 들으니 부인이 운전하여 가까운 거리를 차를 타고 한바퀴 돌았는데 환자가 기력이 없어 힘들어 하셨다고 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환자는 죽음을 부정하고 있는 단계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고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에 대한 통회의 기도만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바쳤다. 그후 다시 방문하려는데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방병원으로 찾아갔는데 1시간 30분이 더 걸렸다. 환자는 검사한다고 아무것도 먹지를 못해 더 기운이 없었고 황달도 더 심해보였다. 부인은 계속 환자 곁에서 울고 있었다. 함께 기도한 후 가면서 또 오겠다고 하니 환자가 고개를 흔들었다. 거리가 너무 먼니까 힘들게 오지말라는 뜻이라고 부인이 설명해 주었다.

며칠 후 다시 병원을 방문하였더니 말은 거의 못하고 가래가 계속 나와 목에서 그렇그렁 하는 소리가 났다. 통증이 심해 간호사를 계속 찾자 부인이 진통제를 물에 타서 드시게 했다. 며칠 사이에 너무 말라 뼈가 다 드러나 있었다. 임종이 가까왔다는 의사선생님의 말씀을 가족이 환자에게 전했다는 말씀을 듣고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아는 대로 애기하고 이 세상의 모든 걱정을 주님과 성모님께 의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요셉성인이 맞으러 오시면 겁내지 말고 손을 꼭 잡고 따라가시라 말씀드리고 예수님과 성모님, 그리고 요셉성인에게 선종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바쳐 드렸다. 그리고 부인에게는 요셉성인에게 편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청하는 기도와 임종경을 계속 바쳐드리라고 말씀드렸다.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저녁 때가 되어 가겠다고 인사를 하니 환자는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고맙다”고 말씀하셨다. 부인이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며 걱정하셔서 연락만 하면 우리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안심시켜드렸다.

다음날 임종하려 한다는 연락을 받고 임종경을 계속 바치며 병원에 도착하니 막 임종하

신 후였다. 환자의 가족과 함께 임종후기도를 바치고 조금 떠 있는 눈을 감겨 드리고 입을 다물어 드렸다. 환자의 얼굴은 너무나 신비스럽고 평온한 표정이었다. 그곳에 있던 우리는 주님께서 형제님을 마중나오신 것을 바라보는 듯 느껴졌고, 형제님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떠나신 것에 너무도 감격했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즉시 연령회 회장님께 연락을 드린 후 울고 있는 부인을 도와 짐을 챙겨 차에 싣고 곁에서 연도를 바치며 성당 영안실로 향했다.

성당 영안실에는 연령 회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무 목주를 손에 쥐어 드린 후 잘 수 세하여 모시고 연도를 바쳤다. 입관할 때는 본당 가정 호스피스팀이 함께 하였다. 그동안 간병하느라고 지칠대로 지친데다가 슬픔이 극에 달한 부인이 정신을 잃어 우리는 부인을 안고 아무 말도 못하고는 그저 등을 쓸어 드렸다.

장례식날은 사랑하는 부인과 가족들을 남겨 두고 떠나기 아쉬운 남편의 눈물인 듯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장례미사를 드린 후 장지로 동행하는 동안 부인은 내내 흐느껴 울었다. 장례 후 연미사에 참석한 부인을 신부님과 수녀님께 인사시켜 드리시 신부님은 가족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다.

이틀 후 댁으로 방문하여 연도를 바쳤는데 부인은 “이제 열심히 살겠다”며 “식사 대접을 꼭 하고 싶다”고 하여 거절하느라 애를 먹었다. 그 후로도 가끔 전화를 드렸는데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 가게에 잘 나간다”고 하였다. 또 “레지오 협조 단원으로 입단하여 기도도 열심히 한다”고 하셔서 무척 기뻐다. 돌아가신 지 49일이 되는 날 방문하여 연도를 드렸고 많이 밝아진 부인의 모습에 하느님께 감사드렸다.

두달이란 짧은 기간이었지만 고인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졌고 환자와 그 가족의 절망감과 외로움, 쓸쓸함에 우리가 얼마나 힘이 될 수 있었는지, 그저 우리는 짧은 시간 동안 함께 있어 드린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지금 생각 해보면 ‘죽음을 미리 말씀드리고 본인이 좀더 일찍 준비할 수 있도록 해 드렸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금은 주님 곁에서 부인과 남아 있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실 그분의 모습을 떠올려 보며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시간들에 감사드린다.